

박해시기 선교사들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썼으며,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자신의 장상(長上)인 주교님이나 동료 신부, 고향의 친척 친지들에게 자신의 활동과 생활, 조선의 사정 등을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 선교사들의 사목 활동은 물론이고 당시 조선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 등을 엿볼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가을호부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로서는 1836년 최초로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하다가 1839년 9월 21일에 군문효수형을 받아 순교한 모방 신부의 서한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 모방 신부가 마카오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sup>1)</sup>

[원문 97쪽]

+

예수 마리아 요셉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1837년 4월 18일 수신

1836년 4월 4일

친애하는 동료 신부님,

제가 (파리외방)전교회 지도부 신부님들께 보내는 편지<sup>2)</sup>를 개봉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12월에 저는 신부님께 2명이나 3명의 조선 소년을 보낼 터이니, (후보신학생이 되는) 그들을 양성할 시설과 지도자들을 찾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선에서는 물론, 요동에서도 그들을 교육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프랑스에서 받은 편지는 다만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교장) 랑글루아(Langlois) 신부님이 보내주신 것뿐입니다. (그동안에) 친척과 친구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께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신부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의 소식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출처는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 1260권(MEP V. 1260), ff.97~98으로, 모방 신부의 자필본이다.

2) 모방 신부가 같은 날짜(1836년 4월 4일)에 쓴 편지를 가리킨다. 역주본은 《상교우서》 2016년 가을호~2017년 가을호에 게재되어 있다.

샤스탕(Chastan) 신부는 돌아오는 (1837년) 1월에 조선에 입국할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브뤼기에르 주교님이 바라시던 대로) 요동에 상주하여 저희들의 상호간 갖가지의 업무를 보아 줄 신부 한 분을 (이미) 보내주셨으면<sup>3)</sup> 좋을 것입니다. 북경에 (남아 있는) 조선대목구의 소지품들을 조선으로 가져오려고 저는 앞으로 단 한 번만 조선인 심부름꾼을 북경으로 보낼 것입니다. 저의 심부름꾼들은 필요한 대로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원문 98쪽] 혹은 세 번 변문까지만 갈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저는 달리 할 수 없이 (유방제 신부를 출신 교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가 성무 집행정지를 당할 짓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에 신부 여러 명이 있게 될 때에는, 저도 같은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유방제 신부가) 성무집행정지를 당한 이유를 알 권한이 있으시다면 신부님께서서는 제가 교황청 포교성 장관 추기경께 보내드리는 편지를 보십시오. 그 편지에 유(Yu) 신부에게 제재가 내려진 이유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신부님을 존경하고<sup>4)</sup> 사랑하며, 기도와 미사 성제로 신부님과 한 마음이 된  
조선의 선교사제, 베드로 필리베르토 모방 신부 올림

추신 : (마카오 대표부의 부대표) 바랑탱(Barantin) 신부님께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방 신부가 중국에 있는 샤스탕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sup>5)</sup>

[원문 103쪽]

모방 신부가 샤스탕 신부에게 (1836)<sup>6)</sup>

신부님의 조선 입국을 위하여 바다를 통한 편한 길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신부님은 제가 다녀온 그 위험한 길로 오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사를 섭리하시는 천주께서는, 제가 온 길로 탈 없이 올 수 있게 해주셨듯이, 신부님도 단단히 보호하셔서 정해주신 임지에 무사히

3) 마카오에 있던 파리외방전교회 대표부의 대표[경리신부]는 선교사 배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4) 신부님을 존경하고 ...: 편지 말미에 쓰이는 틀에 박힌 인사를 요약하였다.

5) 출처는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 1260권(MEP V.1260), ff.103~104으로, 모방 신부의 자필본이다. 정확한 발신지와 정확한 발신일자는 알 수 없다. 이 편지는 1836년 11월 이후에 쓴 것 같다. 왜냐하면 1836년 1월 13일에 입국한 모방 신부가 이 편지에서 “지난 10월에 조선 사람을 압록강하구로 보냈다”고 했기 때문이다.

6) 모방 신부가 ~ (1836) : 문서정리자가 쓴 글이다.

오실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부님을 뒤따라서 다음에 올 선교사들은 신부님께서 겪으셔야 하는 위험한 일들을 겪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10월에 저는 중국의 관동(關東, Kouentong) 지방<sup>7)</sup>과 가장 가까운 조선의 해안을 답사해 보라고 세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을 보내면서 저의 판단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의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갔다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현지 답사보고를 해주었습니다. “11월 초에 저희들은 압록강(鴨綠江, Yalokiang)의 하구지역으로 갔다. (중국의) 만주의 영토와 조선의 영토 사이에 흐르는 압록강은 자연 국경선이 된다. 하구와 가까운 곳에, 곧 압록강의 우안(右岸)<sup>8)</sup>이 되는 조선 땅에 넓은 모래사장이 있는데, 조수물이 들어오는 만조 때에 이 모래사장은 하나의 만이 된다. 조수물이 빠진 간조 때<sup>9)</sup>에는 넓고 낮은 모래톱들 사이에 깊이 얇은 물에 찬 골(구덩이)들이 있다. 압록강의 하구와 작은 만 사이에는 바위들과 돌로 된 일종의 골이 있다. 만의 입구 양안간의 거리는 약 10리(ly)이요 만이 육지에 가장 깊이 들어간 곳에서부터 약 30리 떨어진 바다에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섬에 어느 하급 관리의 여름철 별장이 있다. 그 작은 만의 왼쪽에, 그리고 압록강에서 15내지 20리에 떨어져서, 사람이 살지 않는 멋있는 바위가 있다. 만은 용천포(Long Tching Po)나 용천개(Long Tching Kai)<sup>10)</sup>라고 불린다.”

[약도그림 생략]

중국의 관동인들은 조수물이 들어오면 이 만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 어부들이 사실상 해적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만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관동인들 가운데 정직한 어부들도 있는지를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관동인들과 상통해서는 안 된다는 국법을 무시할 수 있어도, 저희가 만주 쪽으로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지 못할 (진짜) 이유는 해적들에게 잡혀 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이 없(었)으면, 저희들은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동인들과 상통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원문 104쪽]

(조선에 입국하시기 전에) 신부님은 다음의 몇 가지 일을 하시기를 감히 청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첫째로) 조선 땅에 있는 (용천포라는) 만에 성실하고 순수한 관동인 어부들이 드나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일입니다. (둘째로는) (중국의 관동인들 가운데) 성실하고 유능한 교우 어부를 찾아내고, 교우 어부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성실하고 믿을만한 관동인으로서 어부인 척하여 저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해 줄 사람을 찾아내어, 찾아낸 이 협조자들이 압록강의 하구와 가까운 곳에 정착하도록 설득하는 일입니다. 만일 신부님께서 그 두 가지의 일을 하실 시간이 없으면, 왕 요셉<sup>11)</sup>에게 그 일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신부가 아니지만 선교사의 일 말고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곳 사람들은, 제가 필요한

7) 관동은 산해관(山海關) 동쪽의 지역(현재의 중국 동북지역[만주])을 가리키는데 관외(關外)라고도 불렀다.

8) 강이 흘러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우안이 아니라 좌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9) 간조 때의 Sillon나 Tranchée 원문에 있는 이 단어들은 적절한 말들이 못된다. flaque가 더 적절하다.

10) 모방 신부가 쓴 롱칭(Long Tching)은 현재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평안북도 용천(龍川)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개(kai)는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가리킨다.

11) 왕 요셉은 중국인으로 브뤼기에르 주교를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을 했던 페낭(Penang) 신학교 중퇴생으로 가리킨다.

준비를 다 하였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압록강 하구로 가려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에 이러한 시도를 할 차비가 되어 있는데 혹은 아니면 우리는 (내년) 8월이나 9월 경에 (압록강 하구쪽에) 들어가볼 예정입니다. 이곳의 신자들이 그와 같은 시기를 말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갈 배를 만나기 위한 준비가 관동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그보다 더 이르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국에서(관동에서) 온 배도, 조선에서 온 배도 2개씩의 돛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배도 조선배도 뱃머리에 독특한 신호가 되는 깃발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중국배는 뱃머리의 오른쪽에, 조선배는 뱃머리의 왼쪽에 자기의 독특한 신호가 되는 깃발을 6일 동안에, 날마다 약 한 번만 만나질 동안에 그것은 조수에 맞게 올릴 것입니다. 어느 배에서 상대방 배를 알아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호가 되는 깃발을 온전히 내려놓고 조금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다른 쪽 배의 사람들은 “그쪽이 우리를 알아보았다”고 하며, 자기들의 깃발도 온전히 내릴 것입니다. 양쪽에서는 상대방을 잘 알아보았다는 의미로 자기 깃발을 3번씩 내렸다가 올리고 올렸다가 내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양쪽 배는 낮에 서로 떨어졌으면서도 서로 보이도록 했다가 밤에<sup>12)</sup> 서로 아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sup>13)</sup>

관동에서 온 배를 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알리는 지시사항은 신부님께 보내드리는데, 신부님은 이 통지문을 왕 요셉이나 관동배와 조선 배를 만나는 일을 맡은 사람에게 맡기셔야 할 것입니다. 양쪽 배가 서로 만나는 일은 절대적 비밀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비밀이 탄로되면, 이 계획에 가담한 사람들을 잡아보려고 (조선정부는) 나라 전체를 뒤죽박죽 해놓을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왕 요셉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신부님을 보호해 주시기를 천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과 한 마음이 된

조선 선교사제, 베드로 필리베르토 모방 신부 올림

원문대조 · 역주 : 최세구(Jézégou) 로베르 신부 (파리외방전교회)

12) 밤에 중국배를 타고 온 선교사들은 조선 배로 갈아타고, 가져온 물건도 중국배에서 조선배로 옮겨 놓는 것이었다.

13) 모방 신부는 바다 항해와 배 자체에 대해 잘 몰라서 부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다. “뱃머리에, 키의 오른쪽에”라고 쓰기도 하고 뱃머리에 “키”라고 하는 것을 그리기도 했다. 키는 뱃머리에 있지 않고 뱃고물에 있는 것이다.